

미국 학교에서의 평가제도와 대학입시제도

한 종 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미국의 교육 제도

미국은 헌법구조상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로 구분된다. 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의 결정권은 주 정부에 속한다.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는 물론 주립대학(교)까지 주 정부의 행·재정적 관장하에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학교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실제로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부분적인 재정지원(특히 고등교육부와 공교육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수준에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입안,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만, 학교교육에 직접 투입하거나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각종 새 과학교육 과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 새 교육과정이 일선학교에 직접 투입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이 직접 투입되려면 주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따라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주 정부가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를 연방정부가 개발하여도 그 주의 학교에 직접 투입할 수가 없었다.

현재 연방정부의 문교성은 카터정부때 발족되었지만 그 기능과 권한에 관하여 늘 문제가 되고 있다. 현

레이건 정부에서는 그 기구를 축소시켜 옛날 교육국(Office of Education of Dep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으로 격하하려고 까지 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교성의 규모와 기능을 논의하게 된 것은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교육의 제도적 구조는 우리 나라처럼 6-3-3-4와 같은 단일형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아직도 미국의 53%에 달하는 학교구가 8-4년제(초등과 중학교 8년, 고등학교 4년)를 택하고 있고 34% 정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6-3-3-4년제를 따르고 있다. 그밖에도 어떤 학교구에서는 5-3-4제, 즉 5년 초등, 3년 중학교(intermediate school), 고교 4년을 택하고도 있다.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미국은 유치원부터 12학년(고교3학년)까지 학년 구별에 따라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큰 불편을 느끼거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주정부에서는 학예(學藝)에 관한 결정권(혹은 의견권)을 가진 교육위원회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위원의 수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9-15, 6명으

로 되어 있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와 주지사의 임명으로 뽑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 경우를 보면 주민선거와 주지사의 임명으로 반반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의 경우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상당수의 주는 교육위원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될 경우, 교육위원은 주지사의 임명과 선거구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 등 반반으로 구성하는 예도 있다.

2. 교육과정 정책과 운영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은 주정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 교육위원회가 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교육감이 집행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제를 6-3-3-4제로 할 것인지, 8-4 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런데, 주정부 수준에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지방자치 단위로서 지역구에는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있다.

주정부 수준의 교육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큰 정책만을 결정하고 실제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서의 최종 선정 등은 이 교육구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으로 구성되는데, 그 선출 방법은 주정부 수준과 비슷하며, 선출방법 또한 다양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내용의 최종결정은 바로 이 교육구 단위에서 결정되고,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방식도 이 교육구 단위에서 결정된다.

한 예로 과학교육과정의 결정과 교과서 결정과정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우선 과학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조정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교육감이 갖는다. 교육감이 과학교

육 시간을 늘리고 싶든지, 교육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그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기다린다. 그 의결사항을 교육감은 구체화(집행)한다.

특히 과학교육 내용의 개정 혹은 개혁은 특별연구개발팀을 구성하거나, 그 주의 주립대학단체(Board of Regency)에 맡긴다. 그때 교육과정은 실러바스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목적보다는 자세한 수준이 된다. 뉴욕주의 경우는 거의 학년별로 교과서 분량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미국에는 학교급별로 과학 교과서가 시중(市中)에는 수백종이 넘게 발행된다. 이 가운데에서 어떤 교과서를 택할 것인가는 교육구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결정 전에 주정부 수준에서 수많은 교과서 중 주의 교육과정 정책과 일치하는 것을 수십종 선정한다. 이렇게 주단위에서 선정한 다음 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교육구청 단위에서 최종 선정한다.

각급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는 미국의 경우 무료로 공급하는데, 학생들은 그 교과서를 학교 이외의 곳으로 휴대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 개인용으로 집으로 가져 갈 수 없고 교과서가 채택되면 수년간 모든 학생이 사용한다.

그런데 미국의 교과서는 우리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 사용방법이 다르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 정부가 정해준 교과서는 한 페이지도 빠뜨리지 않고 금과옥조처럼 모두 가르치고 배우지만 미국의 교과서는 자료집 역할을 한다. 5~600페이지의 내용을 골고루 따라 가면서 모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내용만을 발췌하여 학생들이 공부한다. 그 발췌는 교사가 미리 결정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3. 학교에서의 학력측정과 평가제도

미국에서 평가방법과 제도는 학제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주마다 다르다.

우선 학력측정은 두가지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교사가 평가도구를 만들어

서 학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쓰는 경우이다. 그밖에도 교육구청 또는 주 단위에서 검사도구를 만들어 학력을 측정하는 주도 있다. 초·중등에서는 주로 첫째 방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학교는 두번째 방법으로 학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좀 다르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와는 다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우리나라 대학과 똑같다. 즉, 모든 교과는 학생중심으로 선택되고 평가는 학점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교사의 평가결과는 모두가 학점에 반영된다. 따라서 교교의 성적은 대학처럼 A, B, C 등으로 매겨진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진급 시험이 없다. 그러므로 유급제가 없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더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8학년을 마치고 9학년(미국의 경우 고교 1학년이 됨 : 8-4제 학교의 경우)으로 진급할 때도 대부분 고교(공립교)의 경우 시험없이 들어간다. 그러나 일부 공립교의 경우(미국내 우수 고교에 해당 : 예컨대, 브롱크스, 스타이비센트, 브루클린, 윗트만, 로열고교 등)는 입학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그 교육구청 단위 또는 주단위에서 치르는데, 그 시험을 고등학교 예비적성검사(SSAT: Secondary School Scholaristic Aptitude Test)라고 한다.

이 시험은 주 또는 교육구청이 관장하여 치르는데, 뉴욕시의 브롱크스 과학고교는 1000점 만점에서 850점 이상이어야 입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교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졸업시험을 치른다(그림 1 참고). 즉, 22개 주는 졸업시험(Minimum-Competency Testing for High School Graduation)을 치고 18개 주에서는 졸업시험을 겸해서 학력평가시험을 고교생에게 실시한다.

한편 20개 주 이상에서는 수학 및 과학교육의 강화책의 일환으로 고교에서 수학 및 과학¹⁾을 필수로 이

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1980-1983년 사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20개 주가 수학 및 과학 이수를 졸업을 위해서 필수화했다(그림 2 참고).

이러한 경향은 고교에서 수학 및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따라서 학교 학력평가에서도 이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고교에서 필수로 하였을 경우 그 성적은 대학입학에도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미국 고교 학생들이 수학 및 과학을 이수하는 시기를 학년별로 보면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고교 1학년에서 수학 및 과학의 대부분 학점을 이수하고 고학년, 즉 3, 4, 학년에서는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3 참고).

이 경향을 바꾸어 말하면 1학년때(우리의 경우 중3학년) 과학 및 수학을 많이 택하고 또한 필수학점을 이수한다. 그러나 3, 4학년으로 갈수록 자연계로 진학할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 및 과학을 고학년도 택하고, 이수학점을 마칠 뿐만 아니라 심화 코스(Advanced Courses in Science)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심화코스를 이수하면 AP(Advanced Placement)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여 그 코스 이수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그 코스 시험을 프린스턴 대학 내 교육평가기구(ETS)가 관장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4. 대학 입시방법과 제도

미국의 대학 입시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으로 나누어 그 입시방법을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대학에서는 입학전형 기준이 우선 다르다. 예컨대, 사립대학의 경우는 ETS가 실시하는 적성검사(SAT) 혹은 중부지역의 ACT(American College Test)라는 적성검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고교 내신성적(GPA: Grade Point Average)을 요구한다. 그러나 주립대학의 경우 그 주내 고교 졸업생(주의 주거민)은 고교 내신성적만으로 입학한다.

대체로 대학마다 다소 다르나, 위 두 가지 방법 중

1)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학(통합과학임), 환경과학, 실험과학 등 다양하고 이 중 1 또는 몇 개를 선택한다.

어느 하나를 택하든가 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주의 대학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학과 선택과 이수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2년 4개 주가 이미 그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개 주가 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실제 대학 하나를 놓고 보면 입학기준, 학생선발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립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우를 들어보겠다.

하바드 대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은 다른 명문 사립대학과 유사하면서도 특이한 전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하바드 대학은 크게 두 가지 선발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학력(주로 SAT 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고교 생활에서의 특별활동 실적이다.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한 기준만 우수하고 다른 기준이 미달일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학력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특별실적을 갑·을·병으로 나누었을 때, 하바드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는 학력의 '상', 특별이 '갑'인 경우 입학은 무난하다. 그러나 학력은 '상'이고 특별이 '병'인 경우 입학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바드 대학이 중요시하는 특별은 예체능활동, 봉사활동(교회, 지역 등), 연구활동(미국 웨스팅하우스 주관 과학경진 또는 연구실적),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우승기록 등 학교의 교과활동 이외의 특별실적을 포함한다.

이 특별은 반드시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봉사활동의 경우, 교회목사의 실적확인서, 지역특별경우(봉사) 지역 행정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실은 한국 학생 가운데에서 학력, 즉 SAT 성적은 미국의 학생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데, 입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특별활동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바드 대학이 이런 입시정책을 따르게 된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Dr. Redfield, dean of admission, 1984).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재들은 고교때 우수한 성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 나름대로의 풀이를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미 고교 또는 그 이전부터 학교성적도 우수하지만, 특별 등 일상생활에서 적극성, 지도성, 활발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특별실적은 바로 하바드대학 졸업 후의 성공여부에도 깊게 깊다는 것을 하바드 대학은 믿고 있다.

다음은 주립대학의 대표적인 예로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입시정책을 보면, 하바드 대학과는 사뭇 다르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구 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교육을 표방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이고, 둘째는 학부중심 교육기관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셋째는 전문대학 시스템(Community Colleges)이다.

첫번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캠퍼스는 7개 지역에 산재돼 있다. 버클리, 데이비스, LA 등에 산재돼 있다. 이 가운데에서 버클리 캠퍼스의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미국 명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캘리포니아 주거학생의 경우, 학교성적 GPA가 B⁺ 이상(학교성적 12% 이내)이어야 한다. 이 대학교는 B⁺ 이상인 학생 가운데에서 성적 순위로 선발한다.

그리고 B⁺가 안되는 학생, 즉 C⁺ 또는 C⁻인 학생이 지망하려면 반드시 SAT 또 ACT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이 85%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매년 같은 것이 아님).

한편 타 주의 학생이 응시할 때에도 SAT(또는 ACT) 시험성적을 근거로 한다. 물론 학교 내신성적(GPA)를 참고하지만 원칙적으로 SAT 성적결과가 증시된다.

둘째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은 17개로서 각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데, 이 주립대학은 학교성적이 30% 이내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이때에도 GPA 성적(내신성적)만으로 입학이 결정된다. 다른 주의 학생은 물론 SAT 또는 ACT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감안한다.

끝으로 전문대학은 107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내 어느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든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 출신이 앞의 두 대학교에 편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학교성적(Community College 성적)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로 실제로 고교 성적이 좋은데도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졸업 후 다시 버클리 캠퍼스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다른 명문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이상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의 예를 열거하였지만, 이들 모든 대학이 입학원서를 내는 데 반드시 학생의 소견서(장래희망, 학교선택 이유 등)를 첨부(원서 양식에 대개 포함)한다.

입학 당시 그 지원서의 소견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기 입학 결정통보제(Early Admission Notice)가 있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응시자 가운데 모든 조건을 갖춘 우수한 학생의 경우 11월말에 결정(대개 다음해 1월에 통보)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 이같이 조기 입학이 결정된 해당자는 대개 모집인원의 10-15% 정도에 해당한다.

실은 미국 고교 졸업생은 대학 지원서를 수십군데나 낼 수 있다. 우수한 학생일수록 여러 명문대학에 지원서를 내는데, 모든 명문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학생 취향으로 골라잡는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조기 입학 통지서를 보내 자기 학교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을 쓴다.

그런데, 미국의 자연계 대학은 특별히 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SAT 또는 ACT 검사를 요구할 때 SAT-수학 혹은 SAT-과학 검사성적을 요구한다. SAT-수학은 SAT 검사가 수학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거나 과학에 비중을 둔 검사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GPA, 즉 내신성적에서 과학, 수학 성적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경우 등의 정책으로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요컨대, 자연계에서의 수학능력(修學能力)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최대한 감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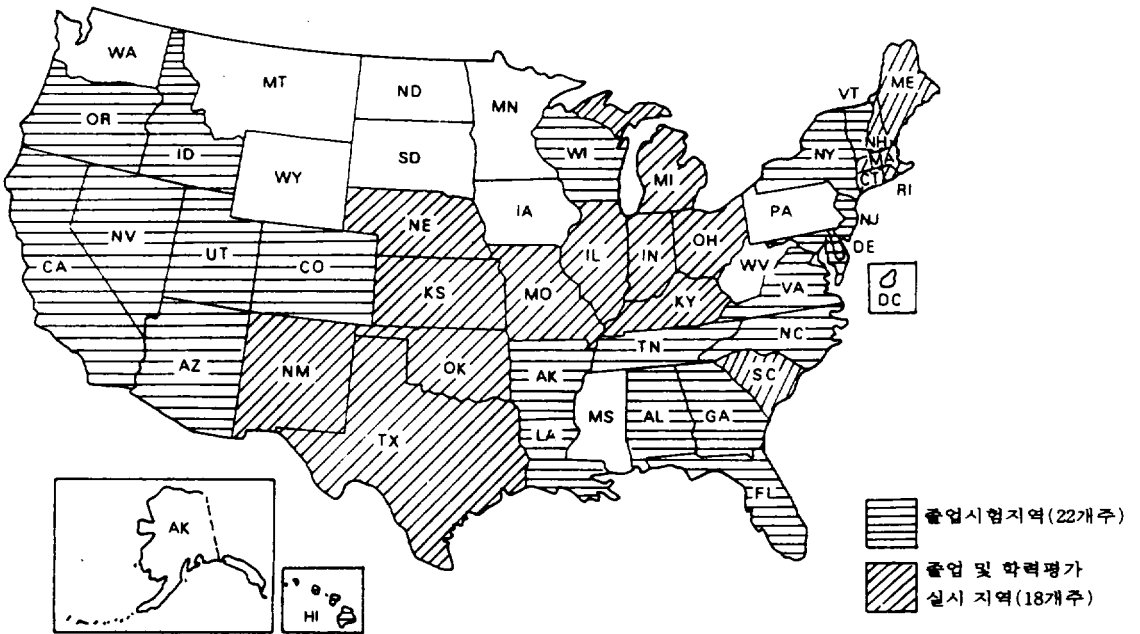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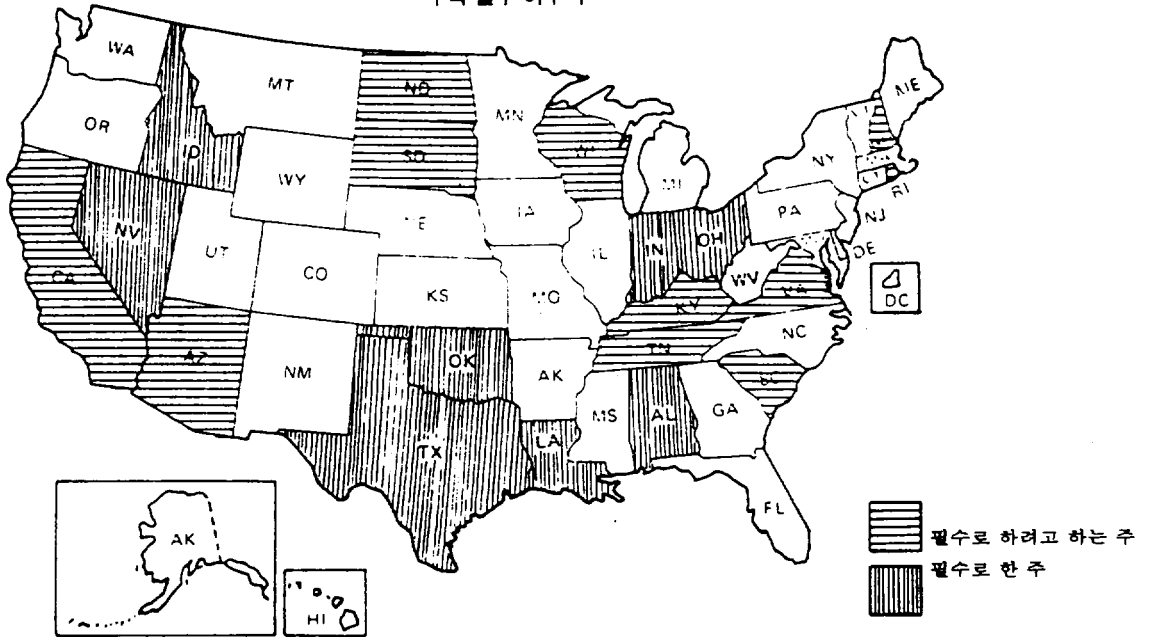


그림 1 고교졸업을 위한 기본기능검사

수학 필수 이수 주



과학 필수 이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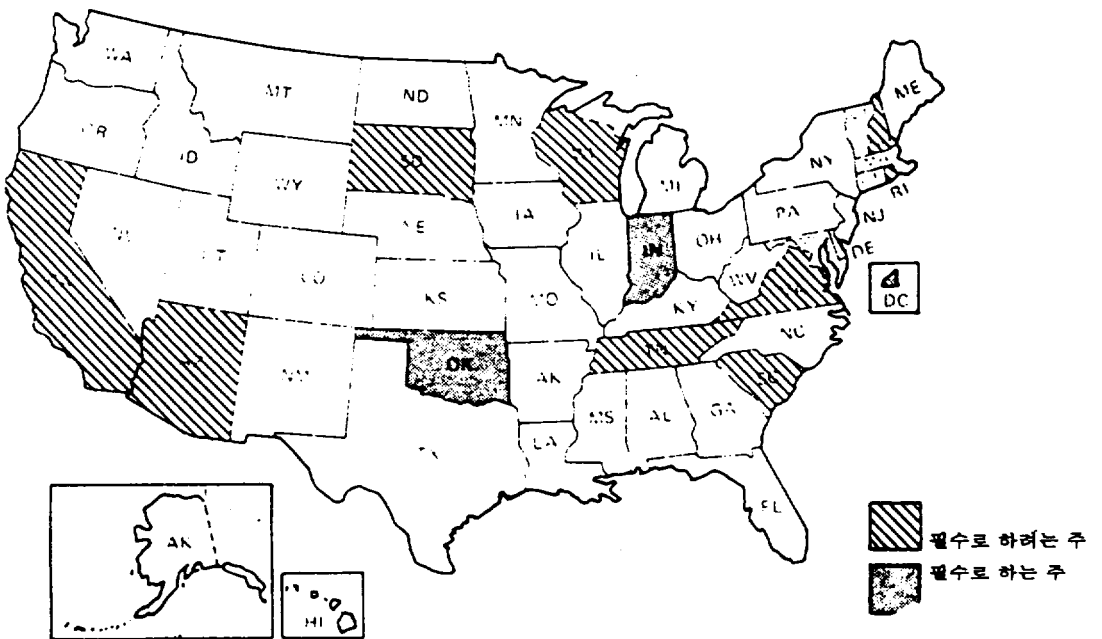


그림 2 고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수학, 과학)

선택 과목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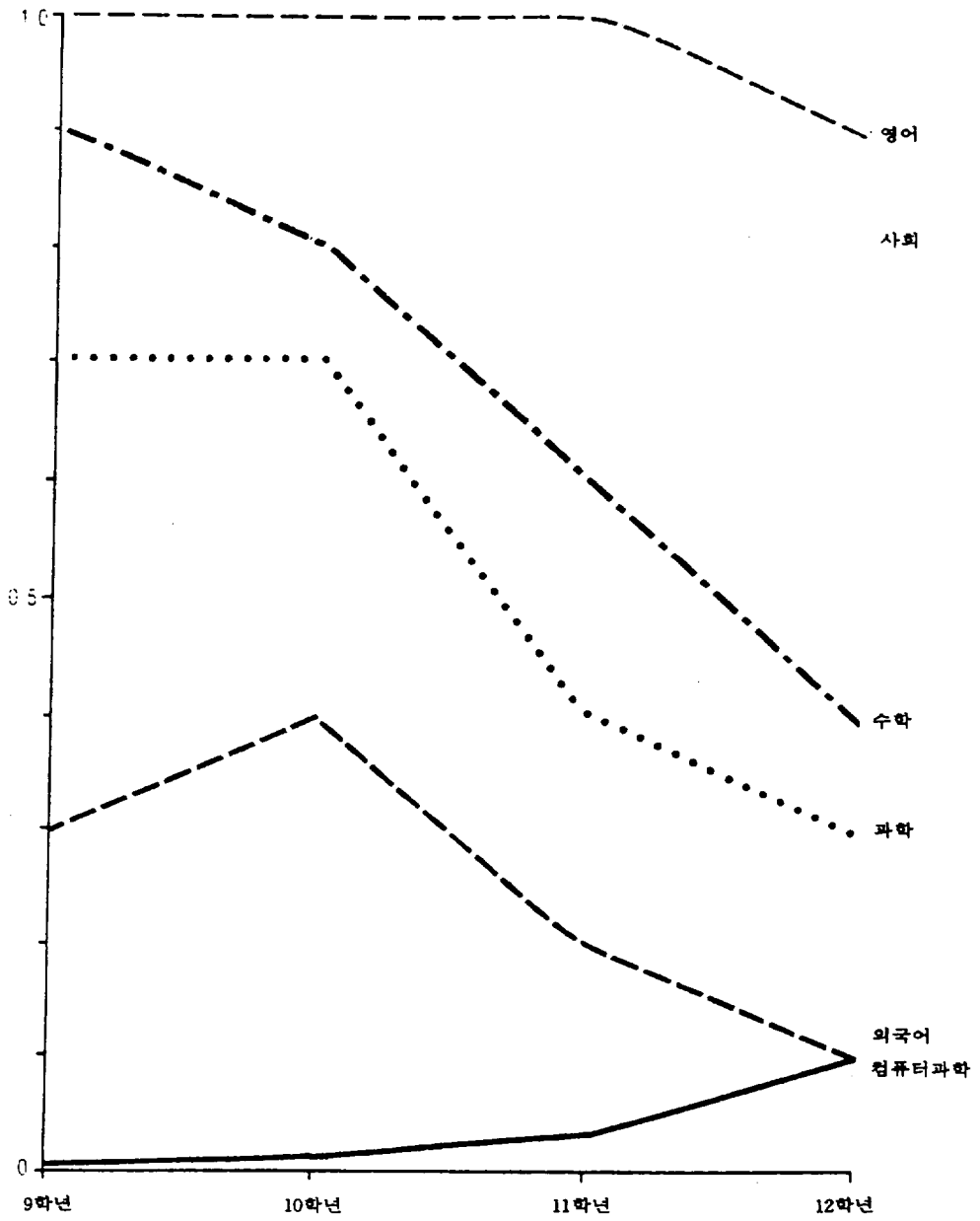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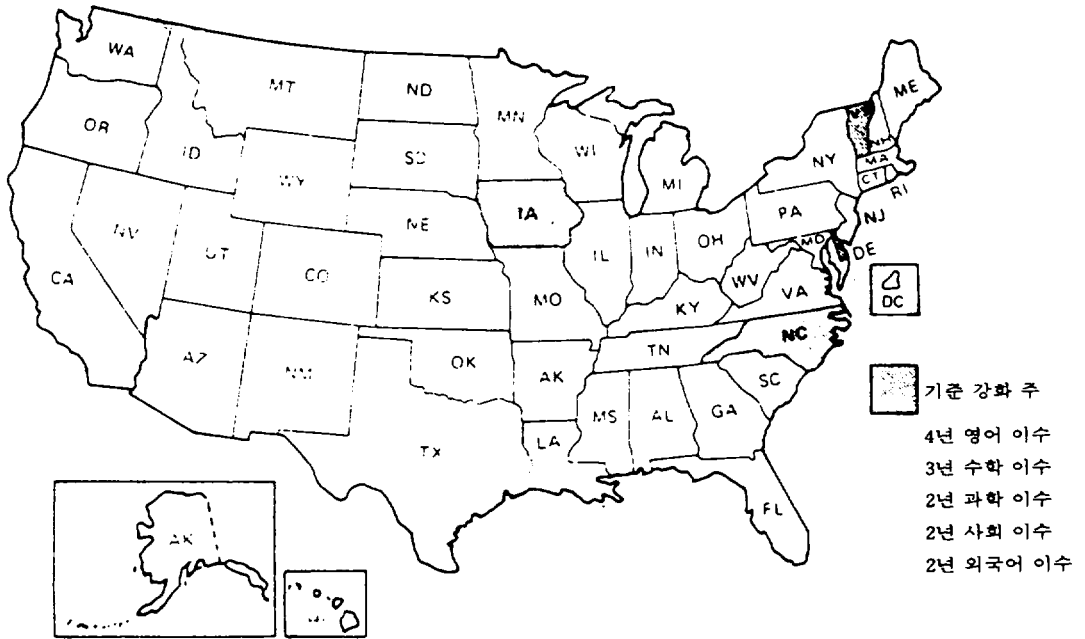


그림 3 1982년 학점 이수 경향

실시 중인 주(교육개혁 일환으로)



고려 중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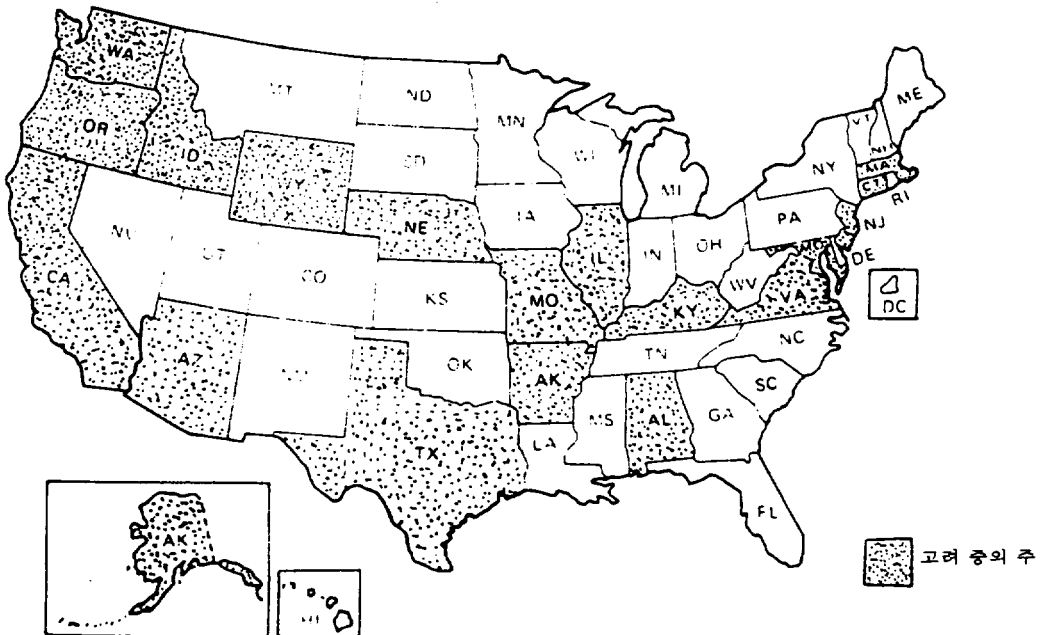


그림 4 주립대학(교)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참고문헌

1. Boyer, Ernest L. High School: A Report on Secondary Education in America. Harper Colophon Books (New York:1985).
2.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The Condition of Education, 1984, U.S.N.C.E.S.
3. 한국교육개발원, 미국교육혁신, 1985, 한국교육개발원.
4. 한종하, 미국과학교육의 동향, 1960-1980, 한국교육개발원. 1984.
5. NCES, Statistics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 NCES, 1980.